순례자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 행 인: 이 종 윤 발 행 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 - 3 전화 / 517 - 7651 ~ 5 팩스 / 512 - 1225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결실하는 비전 2000운동
이제는 새가족의 교회생활 적응과 신앙 성숙을 도와야 할 때

지난 달 2일에 시작한 「비전 2000운동」이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맺고 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믿고 기도하였으면서도 결실의 풍성함을 보며 모두 놀라기도 하고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면서 전도와 기도 운동의 열기가 더해가고 있다. 동참한 성도들은 기도와 전도 생활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격려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전반에 활기를 찾았음을 화제로 삼고 있고, 이 모든 일이 연례 행사로 그치지 않고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는 「비전 2000운동본부」의 실행위원들은 꾸준한 엽서 발송 등 보이지 않는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고 있다. 우리 각자는 남선교회, 여전도회별로 하고 있는 연속기도회와 <정오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는지도 돌아보고 얼마남지 않은 승전감사예배를 드리는 날까지 추수할 일들을 잘 정리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교회를 찾는 많은 새가족과 방문자들이 바른 진리 위에서 계속 성장하도록 돕는 일에도 관심을 쏟아야 하리라고 본다. 각 부서와 전도회, 다락방 등에서는 새가족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전도한 사람 중에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결신한 자들이 계속하여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본 진리를 잘 설명해 주고 교회생활을 안내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새가족 되심을 환영합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믿고 기도하였으면서도 결실의 풍성함을 볼 때마다 새삼 놀라기도 하고 새 힘을 얻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비전 2000운동」의 열기가 더해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주일 II부 예배 새가족환영의 시간)

〈전교인 만남의 주일〉에
100% 출석한 다락방들

지난 10월 23일은 전교인 만남의 주일로 다락방 식구 100% 출석을 목표로 하고 이삭줍기 작전을 폈었다. 이 날 100% 출석한 다락방은 대치 1다락방, 서초 2다락방, 우리 다락방, 미아 2다락방, 수유 2 다락방, 인천 다락방, 군포 다락방, 안양 1 다락방, 미금 다락방으로 주로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다락방들이어서 가까이 있는 다락방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

오늘은 〈친구 초청 주일〉

찬양예배 시에
뮤지컬 〈호세아〉 공연

친구 초청 주일인 오늘은 저녁 찬양 예배 시에 뮤지컬 <호세아>를 공연한다. 세상을 대변하는 고멜, 그리고 그 고멜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호세아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극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뮤지컬의 연출은 김옥겸 성도가 맡았는데, 10명 남짓의 출연자들은 강화도에 있는 철책선에 근접한 김옥겸 성도의 스튜디오까지 가서 맹연습을 했다. 한달 정도의 짧은 연습에 중간에 배역이 바뀌는 어려움도 있었고 비전문인들로 구성된 출연진, 임시 무대와 조명 등 모든 것이 어설퍼 보일까봐 마음 졸이고 있지만 연습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순수하고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던 출연자 모두의 내면적 변화만은 오시는 관객 모두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싶다는 것이 오늘 출연자들의 열망이다.

올림픽 공원가서도 전도한다.
12일(토) 서울시 베드민턴대회장에서

비전 2000운동의 일환으로 오는 12일(토) 오전 11시부터 서울시 베드민턴 대회가 열리는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전도활동을 펴기로 했다. 이 대회를 주관하는 우리교회 송석인 집사(생활 체육 베드민턴 서울시 연합회장)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선수만 1500명, 전체 참가 예상 인원은 7천명에 달하며 텔레비젼으로 생중계 될 예정이라고 한다.

비전 2000운동 본부에서는 많은 인원이 운집하는 운동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효과적인 전략들을 강구하고 있으며 따뜻한 차와 전도지 등을 준비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 주일은 이웃 초청 주일

아직까지 전도하지 못한 태신자와 이웃이 없나 살펴보자. 다음 주일은 이웃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 뜰을 밟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날이다.

11월 학습, 세례식

1994년도 제 5차 학습 · 세례식이 오는 23일(수) 수요 I, II부 예배 시에 거행된다.

이를 위한 교육은 21일(월) 오후 7시에 2층에서, 문답은 22일(화) 오후 7시에 4층에서 갖는다.

창세기 강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17장 1절 ~ 14절)

이 종 윤 목사

중국의 부흥사 Leland Wang 목사는 자신이 쓰는 편지지마다 다음과 같은 글귀를 인쇄해 넣었습니다. "태양을 머물게 하신 하나님, 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아브라함은 구십 구세입니다. 로마서는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하다고 했습니다. 늙은 아브라함과 여인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라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 언약의 내용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4 ~ 6절). 아브라함의 이름에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아브라함은 구십 구세가 되도록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준다고 하셨습니다(7 ~ 8절). 그런데 늦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땅에 대한 약속도 주어집니다(8절). 이스라엘은 본래 땅 없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곧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의 후손에까지 미칠 약속들을 주시지만 이 모든 언약에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기적적인 개입이 없는 한 구십 구세의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마엘이 13살이 된 이 즈음에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혼돈 속에 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언약을 확인해 주십니다.

2. 전능하신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1절).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원하시는 것(willing)에 한해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하며,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샤다이'를 산(mountain)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한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 '엘 샤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조건이 제시됩니다. 피조물인 인간 중에서는 아무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우리는 완전에 이를 수가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행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17:17)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고 성화되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을 때에 피곤해진 영혼에 새 힘을 얻고 좌절 속에서 용기를 얻으며 주님을 떠나 제 길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죄를 씻어 의롭게 하고 확신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순종함으로 완전에 이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3. 언약의 징표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9 ~ 14절). 할례는 하나의 순결예식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14절)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할례를 중요시하다 보니 유대인들은 할례를 공동체에 속하는 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며 할례만 행하면 천국가는 것으로 오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할례로는 안되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할례와 같은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교회의 회원된 표를 받은 것이며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나(하나님)를 위하여(3절)', 그리고 '너를 위하여(9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의식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내가 ~을 할 것이다(I will ~)"라는 약속을 일곱번이나 주셨습니다(창 12:1 - 17):

① 내가 네게(땅을) 보여줄 것이다.
②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③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④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이다.
⑥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⑦ 내가 이 땅을 네게(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에게 무슨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행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그 약속을 다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약속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할 것을 하는 것이지 그의 행위가 조건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사랑으로 베푸신 것입니다. 이 구원에의 감격과 감사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순례자 칼럼 ✣

청와대에 불상이 웬 말?

헛소문인줄 알았는데 이제 사실로 밝혀졌다. 개인 저택도 아니요 종교행사가 거행되는 사찰이 있는 곳도 아닌 청와대에 불상이 웬말인가? 어느 정권 때 누가 누구를 위해 세웠는지 물을 필요도 없다. 속히 헐든지 옮겨야 한다.

청와대에 있는 불상을 헐었기 때문에 나라에 재난이 왔다는 말은 완전히 거짓임이 드러났다. 불상이 아직도 거기에 있지 않은가? 문제는 불상이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국난이 계속된다고 믿는 이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분쟁 또는 특정 종파 편들기 운운하는 여론이 무서워 진리를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

죽음을 각오하고 대도를 걷는 길만이 나라를 살리는 일임을 믿자.

목회자세미나 현장 스케치
10월 31일(월) 제2교시 강의 요약

코메니우스의 『대교수학』

강사 / 박 성 수 교수 (서울대 사대)

코메니우스는 1500년대 말에 태어나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목사로 목회현장에서 일하였다. 그는 1612년부터 1669년까지 58년 동안 127편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대표작으로 꼽히는 「대교수학」은 현대의 전세계의 교육이 이 책의 이론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교수법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과학분야의 고전이다.

I. 대교수학에 언급된 교육관

이 책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씌어졌으며 이 책에 서술한 이론은 "모든 교육은 창조섭리에 따라서 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그의 과학적 교수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치밀하게 관찰하고 발견한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1. 교수법의 원리

① 모든 지식은 개인이 감각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에 근거한다.
② 지식의 진실성과 확실성은 감각하는 대상의 증거에 근거한다.
③ 감각(오관)은 가장 믿을만한 것으로, 감각에 의해 습득한 지식은 영구히 잊혀지지 않는다.

2. 지식 전달자의 규칙

① 알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 다 가르쳐야 한다.
② 가르치는 모든 것은 일상 생활에 적용되어야 하며 일정한 용도가 있어야 한다.
③ 무엇을 가르치던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가르쳐야 한다.
④ 무엇을 가르치던지 참된 본질과 그 기원에 관련시켜야 한다.
⑤ 무엇을 가르치던지 일반원리를 먼저 가르친 후에 세부적인 것을 가르쳐야 한다.
⑥ 사물의 모든 부분은 아무리 적은 것일찌라도 예외없이 그것의 순서와 위치와 상호관련 속에서 학습하지 않으면 않된다.
⑦ 모든 것은 합당한 순서를 따라 가르쳐야 한다.
⑧ 철저하게 이해하기 전에는 어떤 교과를 중단하지 말 것이다.
⑨ 사물간의 차이를 강조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습득된 지식이 분명하고 명백할 수 있다.

3. 발단단계에 따르는 4단계 학교와 반복학습

모든 교육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치되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라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

① 영 · 유아기(~ 6세) - 어머니의 무릎학교
② 아동기(~ 12세) - 모국어학교
③ 청소년기(~ 18세) - 라틴어학교
④ 청년기(18세 ~) - 대학(교양을 쌓고 지도적 역량을 단련하는 시기)

II. 우리 사회갱신을 위한 교육의 지표

① 도덕성 - 도덕적으로 성숙한 교육에 힘써야 한다. 교육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되어 잘 정리된 생활을 하는 인격적 원숙함에 기여하도록 'pastoral care'를 해야 한다.
② 창조성 - 모든 교육은 새로운 지식, 기술, 과학, 사상, 제도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심 - 극도의 경쟁사회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경쟁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 지혜롭게 협동할 줄 알아야 할 것이며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현대 교육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코메니우스의 <대교수학>은 큰 감동을 주는 교육학 서적임에 틀림없지만 그리스도만이 친히 근본적인 인간 변화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적용되어야만 참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전인교육의 완성이라는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대속적 희생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인간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아주 작은 것에까지 실천하도록 교육하며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모든 일에 애정을 가지고 임하도록 할 때, 우리 사회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비전 2000운동 이야기 - 뻐꾸기 시계 수상 소감

"주님 오심을 알리는 경종소리로 듣겠습니다"

오 정 수 (장로, 1교구)

태신자 카드를 처음 받아 들었을 때, 부담감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전도대상자를 찾아 보니 아무도 생각나질 않는 것이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 오던 터라 친한 친구들은 대부분 교회에 다니고 있고, 사업상 만나야 하는 사람조차 신앙인이 아니면 가까와지기를 꺼려하면서 삼가 선택하는 일이 많았기에 가까운 사람 중에서 전도대상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래도 태신자 카드는 작성해야 하겠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창 중에서 몇 가정을 택했다. 과연 받아들일까 하는 의문이 마음 한 구석에 없지 않았으나 두 주 동안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

두주 후, 나의 태신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두고 두고 나에게 고맙다고 할 좋은 소식을 들려주겠다"고 서두를 시작했다. 의외였다. "네가 권하는 것이니 한 번 교회에 가 보겠다"고 교회 출석을 쉽게 응하는 친구도 있었고, 무신론자였던 친구가 "그렇지 않아도 종교를 하나 가지려던 참인데 안내자가 없었다"고 말하며 기꺼이 응하기도 하였다.

2년 전부터 내게 지워진 동창회장이라는 짐은 늘 버겁게만 느껴지던 것이다. 신앙생활과 양립하며 해 나기에는 번거로운 것이 많고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 벗어버리고만 싶었던 감투였는데 요즈음에 다른 각도로 돌아보니 너무도 할 일이 많다. 사방에 십자가가 서 있는 서울 한복판에서도 막상 복음의 내용은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많았고, 교회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으나 용기가 없어서, 인도자가 없어서 발을 들여 놓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았다. 내가 속해 있는 한남 CBMC (실업인 선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경우들을 보아왔다. 공식 명칭은 '실업인 초청만찬'으로 하고 불신자 실업인들을 초청해 그 모임에서 기도하고 성경의 말씀을 담은 메세지를 들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교회 출석을 자원하곤 한다.

「비전 2000운동」 기간인 지난 몇 주 동안 부인과 자녀들까지 함께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계속 출석하는 친구들을 보며 전도하는 일에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던 중에 동창 중 한 명이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또 전도의 문을 여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서둘러 병원에 갔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아니고 정신조차 혼미하여 누워있던 사람이 기도를 마치자 "아멘!"하며 반응을 보이는 것이었다. 어디선가 기도 끝에는 아멘을 한다는 것을 들은 모양이었다. 그 날 일이 그에게 뿐 아니라 그를 지켜보던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하며 계속 기도 중이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것도, 사람의 마음 문을 여시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전 2000운동」이 네겐 감사하기만 하다. 믿지 않는 내 이웃과 친구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만 안드레처럼 주님 앞에만 데려오면 주님께서 친히 키우실 터이니 조금 더 열심을 내어 내 주변을 돌아보며 관심을 가지고 권유해야겠다.

열 명 이상을 전도했다고 교회에서 주신 뻐꾸기 시계가 매시간 뻐꾹 소리를 낼 때마다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까와 옴을 알리는 경종 소리로 알고 신행일치의 생활로 더 힘써 전도자의 삶을 살리라고 다짐해 본다.

이번 기간에 우리 부부는 교회에 처음 오는 친구의 가정에 환영의 표시로 성경책을 한권씩 선물했다. 여섯번째 성경책을 선물하게 될 오는 주일이 흥분 속에 기다려 진다. … 어쩌면 몇 주 후엔 뻐꾸기 시계를 하나 더 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선교지에서 온 소식

아프리카 우간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 글이 도착할 즈음이면 우리나라는 완연한 가을로 어쩌면 한기를 느낄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곳은 이제 우기에서 건기로 되어가는 때라 낮에는 작렬하는 태양으로 눈뜨기조차 어렵고 밤에는 두꺼운 옷과 양말을 착용해야 할 정도로 일교차가 큽니다. 이러한 기온차이와 먼지 등으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소아과 병동은 40여 명의 환아 중 90%가 말라리아와 폐렴 환자입니다. 말라리아로 움직일 수 없는 데다가 폐렴으로 인한 분비물이 가득 차서 꺽꺽 숨을 쉬는 어린아이들에게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치료의 방법은 거저 바라만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면하고 싶으리만큼 가슴 아픈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최후의 치료는 물리적인 의료장비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이 치료의 주님과 동역하는 것이며 진정한 간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즈음 저희 전도팀의 가장 큰 기도제목은 교도소에 있는 형제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루아 교도소에는 300여명 중 100명 가량이 출감을 했고, 새로운 형제들이 수감되었습니다. 출감된 형제들은 육적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주 안에서 누리며 많은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코보코 교도소에는 수감자 중에 모슬렘 교도가 있어 기독교로 개종하면 살인까지 하기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형제들이 있어 그들을 통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헌신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나라 의사들이 있지만 언어가 제일 부족한 제가 책임 간호사가 된 것은 겸손함으로 더 힘써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줄 알고 순종하려 합니다. 평온하고 웅장한 자연, 아름다운 전원과 같은 이곳은 매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적인 전쟁터 입니다. 끊임없는 기도의 후원을 부탁드리며 승리를 기원합니다.

1994. 10. 6.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임정미 드림

"감명깊었던 세미나 문득 문득 생각나"

제 4차 킴치 신학세미나에 참석했던 아프리카 남아공의 후로이즈 목사로부터

우리교회 「국제선교와 교회갱신한국연구원(KIMCHI /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에서 개최한 작년도 아프리카 목회자 초청 제 4차 킴치신학세미나에 참석했던 남아공화국의 마죠리 후로이즈 목사는 킴치세미나에서 받은 그의 소감이 실린 근착 〈Baptists Today (May / Aug '94)〉를 보내왔다. 간추리면;

「고난과 박해를 밑거름으로 성장한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이다. 선교에 대한 비전이 뚜렷한 서울교회는 단독으로 세미나 참석자 전원을 완전히 후원하는 등 하나님 일을 최우선으로 알고 소임을 다하고 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 손이 닿는대로 교회를 세워 세계를 기독교화하는 것이 그들의 절실한 기도인가 보다.

오, 주님! 이 아프리카에도 '주님의 교회를 소생시켜 주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게 하옵소서」

■ 목회자 동정 ■

- 8일(화) 강남노회 제 15회 정기노회가 소망수양관에서 열린다. 우리 교회는 목사, 장로 열 두분의 총대가 참여한다.
- 이종윤 목사는 9일(수)에 지난 주에 이어 두번째로 육해공군진중신학세미나에서 「21세기 지도자들의 비전과 각오」라는 제하의 강연을 한다.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선교사님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
2. 비전 2000운동의 참된 결실을 위하여
3. 태신자를 위하여

비전 2000기도제목

-. 복음 전할 기쁨과 사명을 주옵소서.
-. 복음전할 기회와 환경을 허락하옵소서.
-. 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 북한 땅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될 교회당 건축을 허락하옵소서.
-. 한국교회 갱신운동이 복음증거로 확산되게 하옵소서.
-. 비전 2000운동으로 다락방마다 부흥되게 하옵소서.

순례자 생각 - 차량관리부 집사님들을 뵈면서

고맙고, 든든하고, … 부끄럽고.

정 동 호 (집사, 초등부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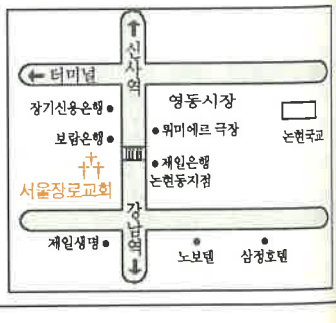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심히 지나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분들과 부서들이 많이 있어서 크던 작던 자기 분량껏 충성을 다하는 덕택에 설립된 지 얼마되지 않은 교회지만 이 오늘의 모습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차량관리부의 집사님들을 대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고 든든한 생각도 드는 한편, 내 자신의 교회 생활을 비교하여 돌아보면 부끄러워지기까지 합니다. 올해 여름의 유난했던 더위도 아랑곳 하지 않으셨으며 차가운 가을의 비바람도 기꺼이 맞으시면서 교회로 달려오는 성도들을 향한 애정의 인사를 잊지 않으시는 집사님! 이제 곧 추위가 닥칠텐데 여느 해와 같이 눈보라 속에서도 묵묵히 수고하시리라 생각하면 나 받은 달란트 힘써서 남기도록 더 달려 가야하리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